



대전 자살률 감소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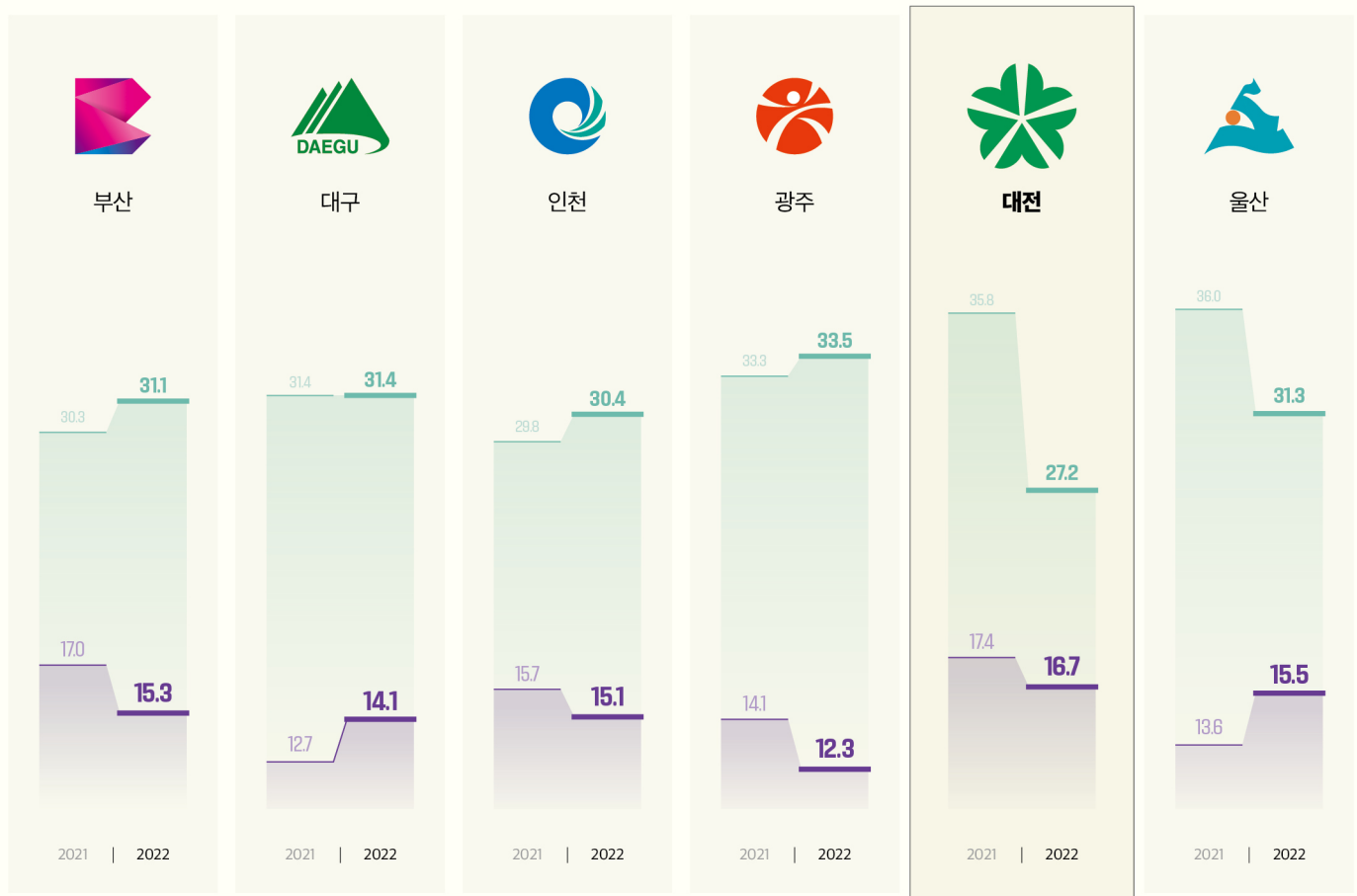
2022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는 1만2천906명으로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한 사람 수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5.2명이다. 대전은 2021년보다 3.6명 줄어든 25.7명으로 나타났다.¹⁾ 대전의 20-30대 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20대 55.8%, 30대 39.2%)은 전년과 비교해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여성, 인구 10만명당 16.7명, 남성 27.2명

대전의 2022년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1.7명으로 2021년(26.5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 2021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여성 자살률을 보인 대전은 2022년(16.7명) 전년 대비 0.7명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다. 남성의 자살률은 광주가 33.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27.2명, 전년 대비 -8.6명)이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6대 광역시 성별 연령표준화 자살률(2021 vs 2022)²⁾

● 여성 ● 남성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1) 해당 연도의 성별·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한 자살률로 연령표준화 자살률과 수치가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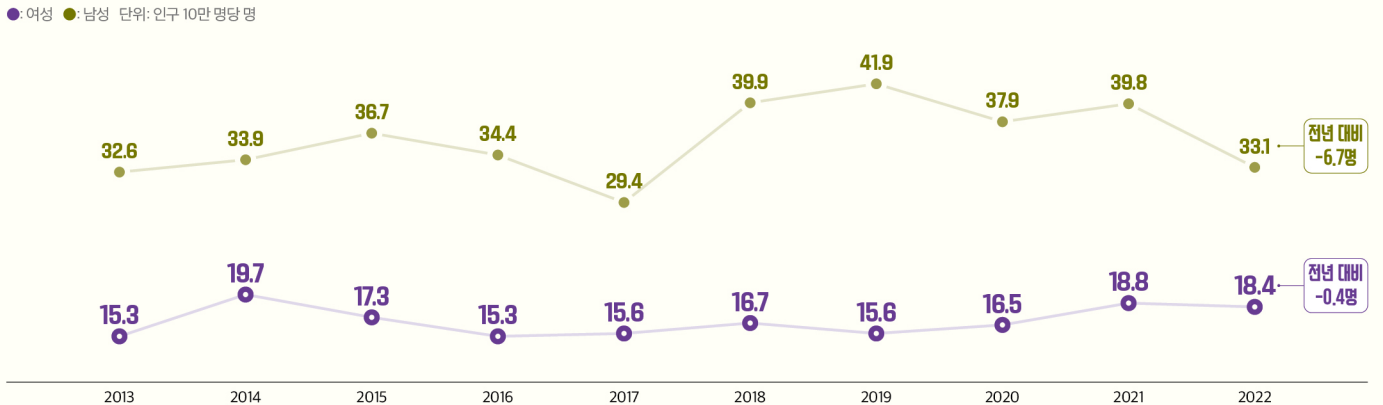
2) 연령표준화 자살률이란 지역별 비교 시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로 비교했으며,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하여 연령구조의 차이를 보정함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 『2024 자살예방백서』

고의적 자해에 의한 대전 30대 여성 사망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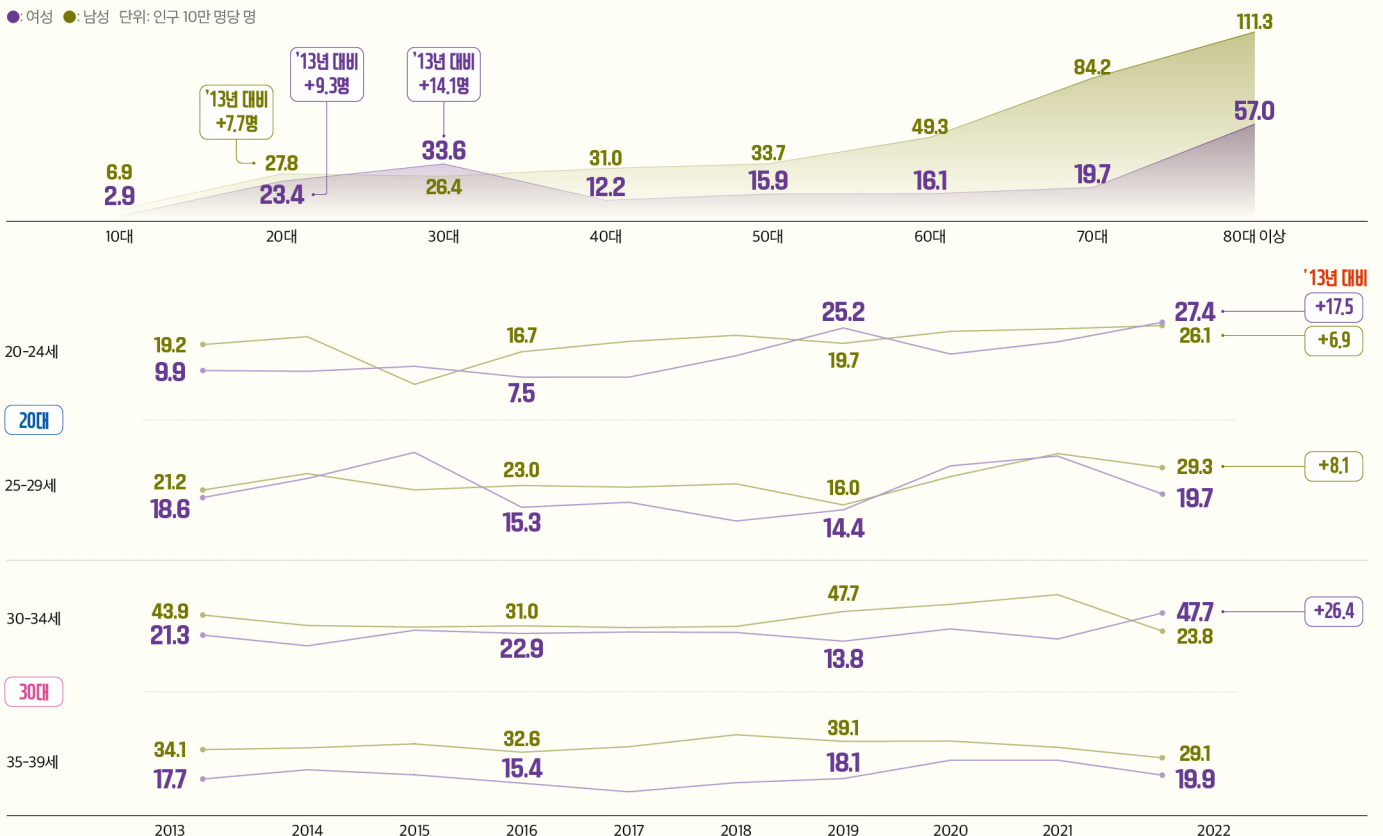
대전 성별 자살률(2013-2022)³⁾

최근 10년간 대전 여성의 자살률은 2013년 15.3명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2년 18.8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했다. 남성의 자살률은 2013년 32.6명에서 2017년 29.4명으로까지 줄었으나, 2019년 41.9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6.7명 줄어든 33.1명으로 나타났다.



대전 연령대별 자살률³⁾

남성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은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57.0명으로 가장 높고, 30대(33.6명), 20대(23.4명), 70대(19.7명), 60대(16.1명), 50대(15.9명), 40대(12.2명) 10대(2.9명)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남녀 자살률의 지속적 증가('13년 대비 여성 +9.3명, 남성 +7.7명)와 30대 여성 자살률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14.1명, 전년과 비교해서 10.5명 크게 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세별 추이를 보면, 30-34세 여성 자살률은 2013년 대비 26.4명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서 20-24세 여성(+17.5명), 25-29세 남성(+8.1명), 20-24세 남성(+6.9명) 순으로 오름세가 가파르다.



3)집단 간 비교가 아닐 경우 해당 연도의 성별·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하여 산출함. 앞서 제시한 연령표준화 자살률과 상이함
- 자살률: (성별·연령별 자살자 수/성별·연령별 해당 연도 연앙인구)×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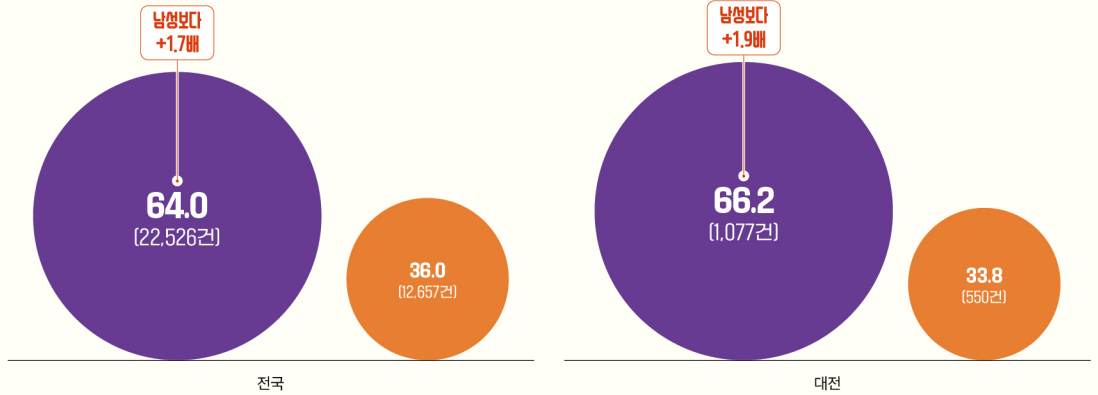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 보건복지부, 『2024 자살예방백서』

대전 자해·자살 시도 여성,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많고 3명 중 1명은 20대

전국 및 대전 성별 자해·자살 시도 현황(2022)

2022년 대전 응급실로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여성 1,077건, 남성 550건으로 여성(66.2%)이 남성(33.8%)보다 약 두 배 많다. 전국은 여성 22,526건, 남성 12,657건으로 여성(64.0%)이 남성(36.0%)과 비교해 약 1.7배 많다.

● 여성 ● 남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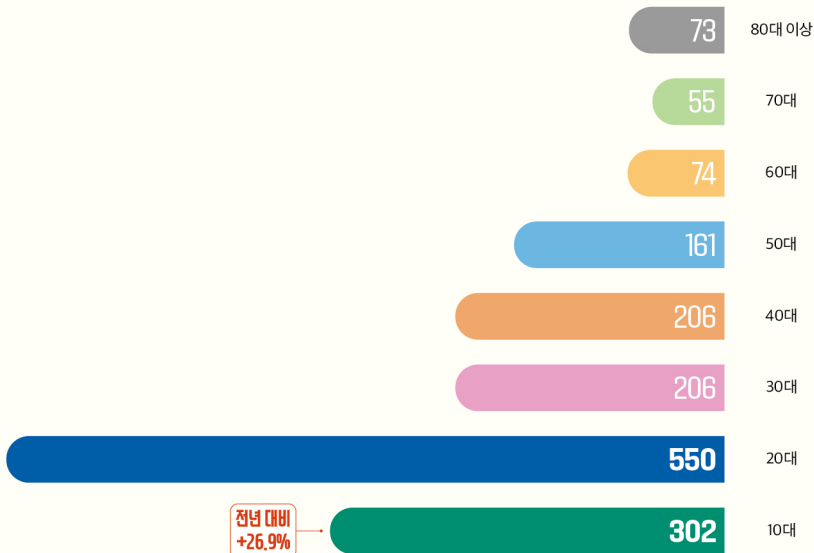


대전 연령대별 자해·자살 시도 현황(2022)

대전의 2022년 연령대별 자해·자살 시도 건수를 보면, 20대가 전년 대비 20건이 늘어난 550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시도 건수의 33.8%를 차지한다. 뒤이어 10대 302건(18.6%), 30대와 40대 각 206건(12.7%), 50대 161건(9.9%), 60대 74건(4.5%), 80대 이상 73건(4.5%), 70대 55건(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해·자살 시도자 중 39세 이하가 65.1%를 차지하고, 10대의 자살 시도자 수가 전년 대비(+26.9%) 급증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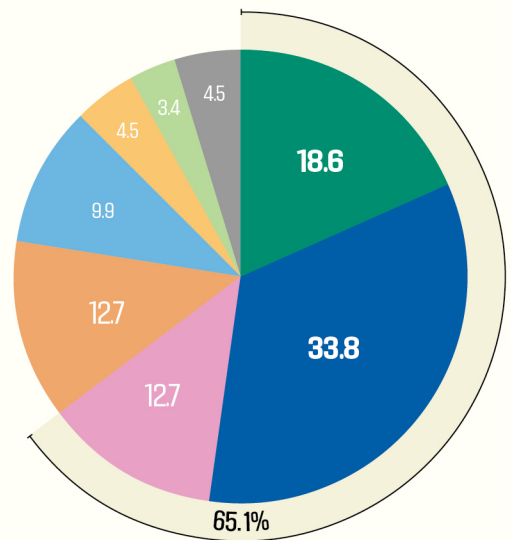
연령대별 자해·자살 건수

단위: 건



자해·자살 건수의 연령대별 비율

단위: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은 전국의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해 접수한 환자들의 진료 정보임.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166개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실시간으로 전송된 정보를 활용함. 대전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5개소에 대한 현황자료임

·지역별 자료는 응급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이며, 응급진료를 받은 환자의 거주지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2022년 대전지역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 5개소에 내원한 자해/자살 환자는 1,627명으로 이 중 대전에 거주하는 환자는 1,204명(74.0%)으로 나타남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2022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24 자살예방백서』